

# 불법건축물 점검...46곳서 위법 80건 적발

### 1단계 감성주점 등 81곳 점검 불법증축 25건, 화재안전 22건 이달 중순부터 점검대상 확대

광주시가 불법건축물 1단계 1차 특별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46곳에서 8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 간 사과클럽과 유사한 감성주점 7곳, 유흥주점 74곳 등 총 81개 업소에 대해 불법건축물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반은 시·구청 건축·위생관련 부서, 소방, 경찰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기간 중 143명(연인원)이 투입돼 불법 증축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세부 위반내용으로는 불법증축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안전 22건 ▲불법용도변경과 위생분야 각각 14건 ▲기타 건축분야 5건 등이다.

이 가운데 서구의 A클럽은 방화벽을 철거한 대수선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북구의 B노래홀은 일반음식점을 유흥주점으로, 동구의 C클럽은 참고 일부해당 클럽으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46개 업소는 해당 구청에서 시정명령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는 점검 첫날 일부 점검지역의 '형식적 점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

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별점검반 반장은 구청 시설 6급에서 시청 시설5급 팀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시청 재난예방과 안전감찰팀 직원 2명을 점검반에 새로 포함해 점검 1개반 인원을 기존 5~6명에서 8~12명으로 확대했다.

합동점검반 반원은 대상 업소 점검 때 이미 건물내부 상황을 숙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도면을 휴대하고 건물 내·외부 점검을 상세하게 진행하도록 했다.

1차로 81곳 점검을 마무리한 점검반은 2일부터 5일까지 적발업소를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중이다.

분석결과 보완점검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 6일부터 9일까지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하고, 1차 점검 시 휴업으로 외부점검만 하고 내부점검을 하지 못한 시설 23곳에 대한 2차 추가 점검을 할 계획이다.

1단계 점검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복층발코니(중층) 다중이용시설 100곳 이상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2단계 점검을 계획 중이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 건축물은 다수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업주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확고한 안전의식을 갖고 건축물을 관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 건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 5개 자치구 안전국장 긴급회의

광주시는 최근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광주시청 협의회실에서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5개 자치구 안전국장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파악과 관리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최근 상무지구 클럽 구조물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일 광주시청 협의회실에서 정민곤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5개 자치구 안전국장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와 자치구는 비슷한 유형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파악과 관리체계 강화,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보건환경연구원, 21번째 연구원보 발간 식품·감염병·환경·동물분야 시민 밀착형 논문 등 27편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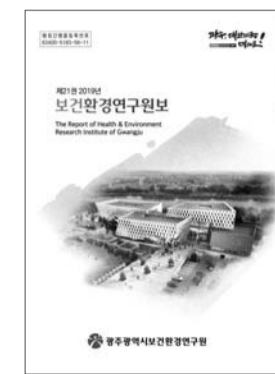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스물 한번째 보건환경연구원보(사진)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원보는 지난해 보건·환경·동물위생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시민생활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과제를 선정해 연구한 결과물들을 모았다.

원보는 총 276쪽으로, 12편의 연구논문과 15편의 조사보고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국내외 학회지에 이미 발표된 10편의 연구논문들은 과제 선정부터 논문 투고까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심의 평가를 통해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식품의약품연구 분야는 '곡류 및 곡류가공품 중 곰팡이독소 오염도 조사연구' 등 3편 ▲감염병연구 분야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분자 역학적 조사' 등 7편 ▲환경연구 분야는 '인자분석을 이



용한 광주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특성 연구' 등 10편 ▲동물위생 분야는 '광주지역 한우 분변 내 설사병 병원체 조사' 등 7편이다.

보건환경연구원보는 대학 연구기관, 언론사,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관련 행정기관에 배부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evi.gwangju.go.kr) 자료실에 게재해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동구인재육성장학회, 30일까지 2019년 장학생 모집

광주동구인재육성장학회는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19년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동구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7월 제27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등학생 32명, 대학생 36명 등 68명에게 8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작년 대비 2100만원 증액한 금액이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동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주민과 그 자녀로, 모집분야는 성취우수, 저소득, 특정분야 등이다.

특정 분야로는 특기자, 봉사·선행·효행 관련 추천자, 각종 창업·아이디어 관련 공모전 등 입상자, 다자녀가구, 다문화가정, 설립인가를 받은 대한학교 학생 등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생 장학금 지원 최고금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고, 저소득 분야 학생에게는 등록금 이외에 '학업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되며, 최종심의 후 10월중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7년 출범한 동구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해까지 1068명의 학생에게 9억9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연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면 장학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개인소득금액 30%, 법인소득금액 1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는 동구인재육성장학회(062-608-2321~2)로 하면 된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북구, 민선 7기 공모·평가사업 잇단 수상...사업비 433억원 확보

### 지방재정 집행·매니페스토 광주 자치구 중 유일 최우수상 지난달 6개 평가·공모 수상도

민선 7기 2년에 접어든 광주시 북구가 각종 공모와 평가사업에서 최근 잇따라 수상을 하면서 상당한 행정·재정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구는 각종 수상과 더불어 433억 원이 넘는 상 사업비 유치까지 이끌어 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 공모사업 유치에 힘쓴 북구의 전략이 유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와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민선 7기 현재까지 총 112개(대외평가

52개, 공모사업 60개)에 이르는 중앙부처 및 민간기업의 평가와 공모 사업을 유치해 총 433억여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와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한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는 매년 행정안전부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로 9년째 수상이다.

북구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에 대해 신속집행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체계적인 행정시스템 구축하고 신

속하게 재정을 집행한 결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61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또 지난달 25일 (사)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2019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는 도시재생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단체장들이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이다.

북구는 주민·청년·대학·행정이 청년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성숙 활성화를 위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해 가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 역량강화 사업, 골목단위 소규모 재생사업 등에

대한 추진 성과들이 높게 평가됐다.

북구는 또 지난달에만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사업비 1억원), 2019년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공간 단장 지역 선정(6000만원),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재지정 선정(2500여만원), 등 총 6번의 평가·공모에서 수상을 하고 상사업비를 유지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달에도 '2019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19 좋은이웃 밝은동네' 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면서 "각종 공모사업 선정은 구청 내 모든 부서가 적극 노력한 결과다. 앞으로도 44만 구민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북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시 청년 일경험드림사업 공통교육

광주시는 5일부터 7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6기 청년참여 공통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청년의 장기 미취업 상태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시가 추진해 온 청년일자리 디딤돌 사업이다.

이번 공통교육은 청년들의 일경험 사업장(드림터) 적응을 돕기 위해 사업장 출근 전에 실시하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공통교육은 2017년 사업 시작 후 1~2기

청년 참여자의 의견을 모아 도입했다.

교육에서는 직장 내 소통과 근로 자세에 대한 직무적응 교육과 노동법,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 5기 사업 참여 공모전에서 입상한 5기 드림청년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6기 청년들에게 일경험 사업장의 원활한 적응을 돕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6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 6기 참여사업장을 모집하고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참여청년 접수를 받아 17일부터 19일까지 드림만남의 날을 거쳐 26일 최종 매칭 명단을 발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신창동 가도빌딩, 근린상가 2층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가도빌딩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 4층중 2층 201호 전체, 건물170평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은
- 사무실, 병원, 헬스장등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12억
- 대출-3억5000만원있음 즉시입주가능
- 임대 - 보증금1억에 월400만 가능
- 매매 - 매수자 제시 요망(8월14일까지)

문의. 010-6834-7400